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전수 합동점검 실시

- 노동부·방사청·소방청 합동 군용화약류 제조·저장 사업장 안전실태 점검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계기, 화재·폭발 위험 요인 집중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소방청(청장 김승룡)은 6월 15일(월)부터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에 착수한다.

지난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계기로 하여, 전국의 42개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국방과학연구소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은 사업장 내 전 시설을 확인하고, 제조·저장·시험 등 군용화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공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허가받지 않은 공실에서 화약류가 취급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화성·폭발성 물질 관리 및 화재·폭발 예방조치 이행 여부, ② 「방위사업법」에 따른 화약류 취급 시설 기준 준수 여부,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화약류 제조 공정 뿐만 아니라 잔여 화약류 세척 등 위험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법령 위반 여부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수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 결과가 현장에 안착 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화약류 취급은 작은 부주의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등 해당 사업장에서 덜 위험한 작업이 없는 만큼, 관계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총괄> |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 배영일 (044-202-8901) |
| | | 담당자 | 서기관 | 온남이 (044-202-8902) |
| 담당 부서 <공동>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자원전략과 | 책임자 | 과 장 | 정동원 (02-2079-6460) |
| | | 담당자 | 서기관 | 최영수 (02-2079-6051) |
| 담당 부서 <공동> | 소방청 화재예방국 위험물안전과 | 책임자 | 과 장 | 이민규 (044-205-7490) |
| | | 담당자 | 소방경 | 안현규 (044-205-7726) |

